

# 서양건축가들의 활동

윤인석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Yoon In-suk

지난 회에는 오랜 쇠국 끝에 개국을 단행한 이 땅의 개항장에 외래건축이 소개되고 현지인들에게 영향을 끼쳐가는 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훑어보았다. 당시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양과 축조과정의 건축과 도시 시설들이 현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이어서 초기에는 그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외래인들만의 작업이었으나 차츰 현지인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스스로 그것들을 참고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오랜 쇠국을 펼쳐온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개항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점점 내륙으로 번져가 그 곳의 주요도시에서는 궁궐을 비롯하여 주요 관공서들이 서양풍으로 건립되었고 민간의 소규모 건물에 까지 외래의 요소들이 나타났다. 여기에 관련된 인물들은 유럽 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운영하던 식민지 각 지역에서 수십 년간 활동하던 유럽인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건축교육을 제대로 받은 건축가나 기술자들도 더러 있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고향에서 집을 지어 보았거나 동남아시아 식민지에서 건축과 건설 일을 눈썰미로 배우면서 체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이들이 고향을 떠날 때 교육을 받았거나 고향에서 보았던 건축은 아직도 유럽과 미국에서 양식주의와 고딕 리바이벌의 유행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동아시아에서 건축 활동을 할 때는 서양건축의 본고장에서는 한 세대나 뒤진 양식의 건축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출발부터 이러한 한계를 떠안고 동아시아의 근대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안고서도 각 지역의 방방곡곡으로 스며들어난 새로운 물결이 당시까지 이어져오던 사고의 틀을 깨면서 서양식 사고를 이해하고 서양식 기기에 눈 뜨게 하여 새로이 소개되는 서양의 문물을 빨리 수용해야만 한다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지게 하였다.

개항 후, 바깥세상으로부터 조선으로 문물이 전달돼 오거나 받아들여서 반응하는 계통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개항장에 세워지는 외교 공관과 무역회사 등의 건축을 들어 온 외교계통의 맥을 들 수 있다. 지난 회에 살펴본 건축들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들어 볼 수 있는 계통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한반도를 침탈하기에 여념이 없던 일본을 통하여 반입된 것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회에 자세하게 살펴 볼 것이다.

세 번째로는 외교적인 계통 이외에 민간 분야에서 옮겨 온 것들로 주로 교육시설과 종교계통의 건축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이 계통은 20세기

초, 외교권이 상실된 후 서양세계와 다양한 접촉이 불가능하였던 조선으로서는 유일하게 일본외의 외부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방편이었다. 따라서 지근지근하게도 이 땅을 괴롭혔고 이 땅의 근대화 과정에 싫든 좋든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일본계통의 결과물들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려운 다른 경로의 유입물로서 우리에게는 보석처럼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바로 이 계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네 번째로는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이 땅에 바깥세상의 문물이 들어온 후 이 땅의 사람들이 반응한 현상이다. 이는 경로라기보다는 반응현상이라 하여야 하겠으나 문화의 유입과 정착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한국근대건축역사 정리에서 대단히 면밀한 접근과 분석, 정리를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현상에 대한 기술을 하는 것은 한국내의 외국인 건축가 활동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번 기획연재 범주 밖의 내용이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개항기의 이 땅에 서양인들이 어느 정도 들어 왔던 것일까?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겠지만, 19세기 말부터 한반도를 침탈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대비하여 온 일본이 서양인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조선재유 구미인 조사록(朝鮮在留 歐美人 調査錄)'이라는 자료가 가장 세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광복 후 중앙대학교 영신아카데미에서 조선총독부의 자료를 토대로 1981년 4월에 편집, 발행한 것이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서양인에 대하여 연도별(1907년, 1908년, 1909년, 1912년, 1924년, 1925년, 1927년, 1929년, 1937년, 1938년, 1941년, 1942년), 지역별(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출신국가별로 분류하고 가족사항(결혼유무, 자녀수), 나이와 직업, 내한 연도, 주소 등을 기록해 놓았다.

1907년-516명, 1908년-749명, 1909년-777명, 1912년-1097명, 1924년-1385명, 1925년-1265명, 1927년-1385명, 1929년-1265명, 1938년-1469명, 1941년-605명, 1942년-498명의 서양인들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국내의 거주 지역으로는 당연히 경성부(서울)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으로는 초기에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나 후기로 가면서 선교를 위해 내한한 기독교의 종교인이 대부분이었다. 천주교의 신부, 수녀와 개신교의 선교사, 목사 그리고 외교관이 대표적인 직업

으로 나타나고 있고 함경도 지방의 광산에는 광업관련 기사들이 있고 의사, 간호부들이 약간씩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인들을 비롯하여 주요 유럽국가의 사람들이 약간 명씩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한 가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직업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양복상(洋服商)이다. 한반도 내에 서양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지역별로 국가별로 골고루 상당 수 나타나고 있다. 타국 생활이지만, 의식주 중에 아마도 자신들의 식습관에 맞게 만들어 먹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자신들에게 맞는 건물을 짓는 것은 빈도가 그리 많지 않았기에 전문기술자가 절실히 필요치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고 추측해 본다. 그러나 매일 입어야 하는 서양식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개별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기성복을 구입해 입거나 재단사에게 의뢰하여 만들어 입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서양인의 분포 지역에 반드시 상당수의 양복상들이 같이 존재하여야 하는 사유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그들로 보아서도 현지인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이용하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 중에 건축가나 건설기술 관련 인사가 어느 정도 파악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직업이 건축사(建築師)로 기재된 사람이 꼭 한 사람 있었다. 러시아 출신의 안코프스키(A. M. Yankofski)이다. 1933년 내한하여 함경북도 주율면의 온천지대에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할 만한 작품 또는 작업은 건축 관련 기록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서양인들이 관여하였던 건축물은 대부분 그들이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온 종교, 즉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들이 믿는 신을 전파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배의 처소 교회건물을 우선 세웠고, 근대화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와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부터 꾸준히 발전하여 온 신식병

원, 복지시설을 건립하였다.

조선인들이 가장 먼저 접한 기독교는 구교인 천주교이다. 그런데 처음으로 조선인들이 접했을 때는 종교로 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였다. 조선 조정으로부터 중국에 파견 받은 사신들에 의해서 17세기 초부터, 당시에 중국에 전파되어 있던 천주교를 '서학(西學)'이라는 학문으로 도입하였다. 조선의 사신이 중국에 체재하였을 때 서양인 선교사들을 만나서 받은 서양의 천문학, 지리학, 수학, 역법 등에 관한 지식과 서적을 가지고 귀국하여 국내에서 종교로 발전시켜 전파하였다. 이는 해외로부터 선교사를 파송 받지 않고 현지에서 자생적인 신앙이 생겨 전교된 지역으로서 서구 기독교 선교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외래종교의 전래 초기에는 재래의 종교와 현지 정부로부터 엄청난 견제를 받게 마련이었다. 조선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선교초기에 천주교는 1886년 한불수교조약이 맺어지기 전까지 혹독한 박해를 받았다. 외교관계가 맺어지자 교회건물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져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서양인 선교사, 신부들이 중심이 되어 성당과 관련시설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박해시대에 조선인 신도의 명의로 매입하였던 대지에 성당건축을 시작하였는데 1886년 명동성당의 대지정비 작업을 비롯하여 서울 시내에 교회, 주교관, 수녀원 등을 건립하였다. 천주교 시설의 건축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프랑스 출신 'Coste' 신부와 그의 사후에 뒤를 이어 성당건축에 헌신한 'Poisnel' 신부이다. 천주교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는 지방에도 교회와 관련시설들을 건립하였다.

명동성당 보다 늦게 착공하였지만 규모가 작은 관계로 먼저 준공된 서울 약현성당(현 중림동 성당, 1891~1882), 명동성당(원래명 종현성당, 1892~1898)의 본당과 사제관, 수녀원, 원효로 성당과 신학교(1899~1902) 등이 서울에 건립되었고, 지방에는 대구 계산성당

1\_ 명동성당 주교관 1890년 2\_ 약현성당 1989년 3\_ 명동성당 천장 4\_ 원효로성당 1899년~1902년 5\_ 명동성당 1892년~1898년 6\_ 대구 계산성당 1901년~1902년



(1901~1902), 전주 전동성당(1908~1914) 등이 속속 지어졌다.

천주교의 한반도 선교는 프랑스의 '파리 외방전교회', '베네딕토 수도회' 등이 담당하였는데 교회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파리외방전교회'에 속한 성직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건축 전문가들이 아니었다. 단지 건축경험을 지닌 아마추어 건축가들이 그들이 속한 교단의 건축양식을 근거로 건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천주교 건축들은 이들의 영향을 받아 당시까지 프랑스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었던 고딕 양식을 주축으로 교회가 건립되어 나갔다. 이 건축물들은 전문가에 의해서 유입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이라는 매개자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순수한 형태로 전래된 서양건축이서 한국근대건축 역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개신교가 조선에 전래된 것은 1882년 한미수교조약이 체결된 이후였다. 1885년 미국 북장로회의 언더우드 목사와 미국 북감리회의 아펜셀러 목사가 선교사로서 공식적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서울, 평양에 포교소를 설치하고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여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하여 선교를 하였다. 그 후, 미국 남장로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영국 성공회, 미국 남장로회로부터 선교사들이 조선을 찾아와 활동을 펼쳤는데 아무래도 아시아 진출에 힘을 쏟고 있던 미국의 개신교회가 중심이 되었다.

선교초기 개신교의 교회건축은 조선가옥을 빌어서 한양절충의 건물에서 시작하였다. 그 중에는 당시 조선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유교적 관습이 건축형태에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남녀의 예배석을 구분하기 위하여 시선차단용 장막을 가운데 설치한다든지 건물형태가 ㄱ자 모양으로 지어지는 것은 조선의 사회적 여건이 건축에 미친 독특한 결과라 하겠다. 본격적인 서양식 교회는 감리교 계통의 정동교회(1895~1898), 상동교회(1900~1901), 새문안교회(1907~1910) 등이 세워지면서부터 인데 천주교의 성당처럼 뚜렷하게 양식적인 통일성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각 교단별로 활동하는

개신교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던 교리와 교단 운영방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단, 뾰족 아치를 가진 창과 종탑, 장미창 같이 부분적인 고딕양식을 띄고는 있고 미국의 개신교 소규모 교회에서 즐겨 채용하던 단순화된 영국식 고딕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굳이 꼽자면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이외에도 초기에 세워졌던 개신교 계통의 건축으로는 기독교청년회관(1907~1908, B. C. Donham 설계), 세브란스 병원(1902~1904) 등이 있다. 이 시설들은 후에 증축하게 되는데, 증축설계는 일본에 근거지를 두고 동아시아 선교운동을 하고 있던 미국인 선교사 건축가 'W. M. Vories'가 설계를 담당하였다.

선교사들은 교육기관도 운영하였는데 배재학교(서울, 1885), 이화학교(서울, 1886), 경신학교(서울, 1886), 송실학교(평양, 1894), 영신학교(평양, 1895), 명신중학교(재령, 1888), 배화여자중학교(서울, 1898), 송의여자중학교(평양, 1903), 계성학교(대구, 1906), 연희전문학교(서울, 1915)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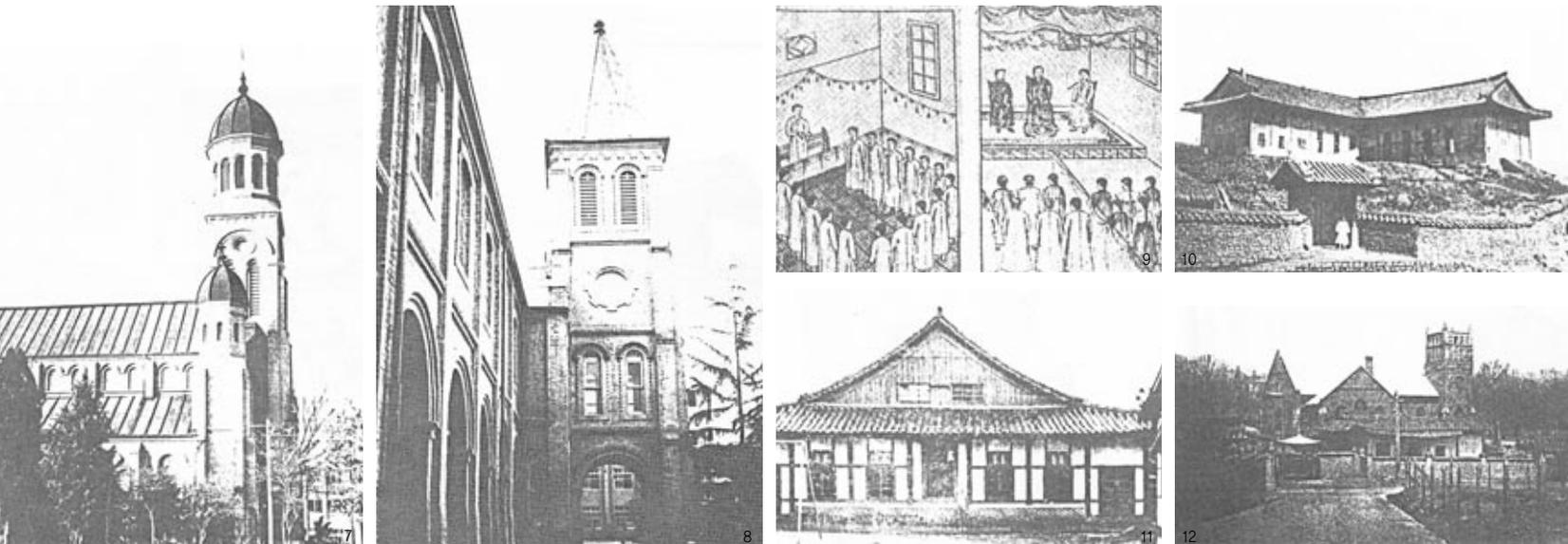
건축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경신학교 본관, 평양 송실학교 본관, 대구 계성학교 본관, 연희전문학교 등이다.

경신학교 본관(감리교계, 1902~1905)은 서울에 세워진 상동교회나 세브란스 병원과 닮은 점이 많다. 평양송실학교 본관(장로교계, 1911~1912)은 3층 벽돌 건물로 한식 지붕을 올려서 한양절충식 건물의 한 쪽 계통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계성학교 본관(장로교계, 1931)은 준공 당시 2층 건물이었었는데 건물 중앙에 있는 두개의 터렛, 좁고 긴 창, 파리핏의 베틀먼트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연희전문학교 본관(장로회계, 1921~1925)은 석조 3층 건물로 튼터 아치

7. 전주 전동성당 1908년~1914년 8. 대구 유스티노신학교 1914년~1916년 9. 개신교 선교초기 예배실 남녀분리모습 1901년경 10. 평양 장대현교회(ㄱ자모양) 1909년 11. 남대문 교회 12. 정동교회 1895년~1898년



양식이다. 이 건축의 설계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본 동경의 릿쿄대학 캠퍼스의 배치방법과 외부디자인이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에 체재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교육시설 설계에 업적을 남기고 일본의 릿쿄대학을 설계한 미국인 건축가 'H. K. Murphy'의 작품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교파는 다르지만 영국 성공회의 강화성당(1900년 준공)은 한국의 전통 양식으로 세워진 독특한 교회이다. 전통 사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인 'Mark Napier Trollope' 신부의 제안으로 한국전통 사찰양식에 바실리카 형식의 평면을 접목시킨 교회건축이 성립되었다. 단 한옥정면이 이 성당에서는 측면이 되고 한옥의 측면이 성당에서는 정면 출입구가 위치하여 동서양의 건축적 요소가 상호 변화,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영국성공회는 1926년 서울에 순수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를 건설하였다. 설계자는 영국 왕립건축학회원 'S. Dixon'이다. 성공회의 교회는 그 숫자가 적지만 천주교나 개신교와는 다른 독특한 건축양식의 건물을 건립하였다.

아직도 한국 내 개신교 건물을 설계한 서양인 건축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다. 그런데 위에 언급하였던 'W. M. Vories'는 경력과 작품목록, 도면 등이 온전하게 전해져 오고 있어 일제 강점기 동안 건축계의 한 단면을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보리즈는 미국인으로, 1905년 일본으로 건너 와서 196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59년간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행하는 한편 미선계 시설물의 설계활동을 활발히 실행하였던 인물이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보리즈는 콜로라도 대학 졸업 후 -그는 1900년, 대학진학 당시, MIT의 콜로라도 대학에서 교양과목들 이수 한 후에는 MIT건축학과에 편입하도록 입학허가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1902년 신앙적인 자각으로 말미암아 건축학과 진학을 포기하고

콜로라도 대학 인문계의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1905년 일본 시가현 오미 하치방에 소재한 현립 상업학교의 영어 교사로 발령 받았다. 1907년에는 교사직을 사직하고 개인적으로 건축을 공부하여 1908년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 후, 오미 하치방에서 YMCA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계속하며 보리즈 합명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건축설계를 시작하였으며, 미선 계통의 건축 설계일이 늘어나 직원 24명에 달하는 큰 조직이 되었다.

이렇게 경력과 실적이 쌓인 보리즈는 일본 국내 뿐 아니라 중국과 조선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많은 수의 미선계 시설의 작품을 남겼다. 조선에 건립하여 남겼거나 계획한 작품은 약 160건 정도에 이른다. 학교건축 54건(계획안 19건 포함), 교회 33건(계획안 15건 포함), YMCA 13건, 병원 9건(계획안 5건 포함), 주택 56건(계획안 15건 포함) 등인데 실제로 지어진 것은 111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리즈 설계사무소에는 강윤(일본 칸사이 고등공업학교 졸업, 1920년부터 1945년까지 근무), 임덕수(1920~1929년 근무) 두 사람의 조선인 직원이 있었다. 강윤은 공주의 영명학교 출신으로 1919년 공주지역 독립만세운동의 주역으로 일제의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상태로 있다가 영명학교 설립자인 윌리엄 선교사의 추천으로 일본의 보리즈 선교사에게로 유학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그 곳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뒤 조선 내에 세워지는 미선계통 건축의 설계와 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사무소



13\_ 성동교회, 1900~1901년 14\_ 성공회성당, 1927년 15\_ 새문안교회, 1907년~1910년 16\_ 성공회 강화성당 1900년 17\_ 기독교청년회관, 1909년~1908년 18\_ 세브란스 병원, 1902년~1904년 19\_ 배재학당 20\_ 경신학교 본관, 1902년~1905년



의 소장을 맡아 보았다. 보리즈는 모두 일곱 번(1908, 1916, 1919, 1920, 1927, 1933, 1935) 조선을 다녀갔다. 조선에서 보리즈의 대표작은 이화여자전문학교 마스터플랜과 교사 건물들이다.

천주교 계통의 건축은 프랑스에서 발달한 고딕 양식의 교회가 주류를 이루었고 개신교의 건축은 양식적으로 일관된 것은 없었으나 단순화한 미국식 고딕이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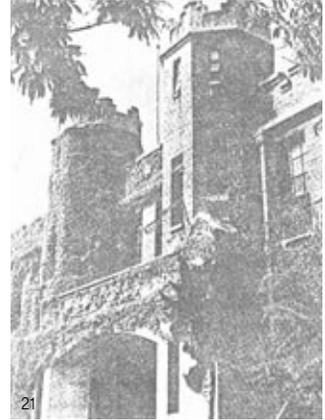
당시의 서양인 건축가에 의한 미션 건축은 일제에 강점당한 조선에서 범람하던 왜색의 때가 까지 않은 비교적 순수한 서구 본 고장의 건축이 전해진 것이어서 한국의 근대건축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으나 미션계의 건축을 위하여 이 땅에 머물면서 건축 활동을 펼친 서양인 건축가는 불행히도 한 사람도 없었다. 그나마 뚜렷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보리즈도 이 땅에 머문 사람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정확히 말하자면 정식교육을 받은 건축가라기보다는 건축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선교사였으며 서양식 건축의 불모지대인 일본에서 아주 성실하게 활동하였기에 건축가의 위치에 설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설계에 건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대로 교육을 받은 미국인 건축가들을 사안별로 초빙하여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제강점기 동안 서울에 체류하여 건축설계 일을 하였던 오스트리아 출신 안톤 패러라는 서양인이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그는 나카무라 요시헤이라는 일본인 건축가의 사무실에 소속된 사람이었기에 다음 회에서 다룰 일본계통의 유입경로를 살펴 볼 때 언급하기로 하겠다.)

일본은 개항 이후에 서양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유럽, 미국으로부터 기술자, 건축가를 초치하여 장기간 체일하면서 설계작업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교육기관에서 후진 양성을 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개항 후 상하이가 일찌감치 동아시아 지역의 서양인 집결지 역할을 하면서 서양문화,

신식문화의 발신기지가 되어 있었다. 베이징에는 교육기관이 생겨서 서양인 건축가들이 중국 전통건축에 대한 이해를 부단히 해 가면서 중국인 건축가를 길러내고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당시의 한국은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 지배를 당하며 우리의 의지대로 나라를 경영하지 못하여 중국과 일본에 진출해 있던 서양인 건축가와 기술자들이 원거리에서 원격 조정하여 만들어낸 생산물들을 받아들이는 데에 만족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에는 외래문물 유입경로를 분석하는데, 경로의 다양화라는 점에 그나마 보탬이 된다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허망한 기분이 들게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돌아 볼 때 마다 앞으로 우리의 죽대를 잃지 않고 곳곳하게 국제무대에 설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야 하며 그렇게 내공이 쌓여 있어야만 해외로부터 밀려들어 오는 다른 종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토종의 인자가 꾸준히 대를 이어 나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개항기와 이 땅의 어지간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던 양복상들에 의해 서양식 복장이 서서히 퍼져 오늘날 한국인의 평상복이 되었고 이 땅에 체류한 서양인 건축가가 딱히 없었는데 건축도 서양식 일색으로 지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 기획연재의 큰 주제인 잡종강세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가 유입되고 한 세기 남짓한 동안 방방곡곡에 퍼져,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셀 수 없이 달려있는 교회의 붉은 십자가 네온싸인은 개항이후 이 땅에서 생겨난 잡종강세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ㄷ



21\_ 대구 계성학교 본관 1931년 22\_ 평양송실학교 본관 1911년~1912년 23\_ 대구 성모굴 1911년 24\_ 연희전문학교 본관, 1921~1925년 25\_ 이화여자전문학교 1933년 26\_ 이화여자전문학교 마스터 플랜 27\_ 인천 답동성당



21



23



26



24



25



27